

[기획] >> 4면 학생인권 현주소	[기획] >> 5면 글캠퍼스, 미숙한 운영	[기획] >> 7면 계절학기, 빈익빈 부익부	[문화] >> 8면 주점 전면금지, 축제의 변화
------------------------	----------------------------	-----------------------------	-------------------------------

2018 -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

학번 :
성명 :
캡퍼스 :
수강학과 :
수강학년 :
수강가능학점 :

로그아웃(Logout)

Notice

수강신청 및 수정/삭제

수강신청열람

시간표조회

강의시간표조회

수강신청 및 수정/삭제(Course Registration [Adding/Deleting])

☒전체(All) ☐서울캠퍼스(Seoul) ☐글로벌캠퍼스(Global)

48		서울	전공	경영학전공	D01311201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2	3	서재웅	미/교 456화 456수 456목 456 미/교 456()	72 / 80	☐	글로벌 국제경영, 경제학, 경영정보, GBT, 국제금융 전공/이중/부 인정
49		서울	전공	경영학전공	D01311202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2	3	서재웅	미/교 789화 789수 789목 789 미/교 789()	22 / 80	☐	글로벌 국제경영, 경제학, 경영정보, GBT, 국제금융 전공/이중/부 인정
50		서울	전공	경영학전공	D01314101	조직행동 (Organizational Behavior)	2	3	오승희	미/교 456화 456수 456목 456 미/교 456()	36 / 80	☐	글로벌 국제경영, 경영정보, GBT, 국제금융 전공/이중/부 인정
51		서울	전공	경영학전공	D01314102	조직행동 (Organizational Behavior)	2	3	김두진	미/교 789화 789수 789목 789 미/교 789()	29 / 80	☐	글로벌 국제경영, 경영정보, GBT, 국제금융 전공/이중/부 인정
52		서울	전공	경영학전공	D01405401	마케팅관리 (Marketing Management)	2	3	이만홍	미/교 456화 456수 456목 456 미/교 456()	46 / 80	☐	글로벌 국제경영, 경영정보, GBT, 국제금융 전공/이중/부 인정
53		서울	전공	경영학전공	D01405402	마케팅관리 (Marketing Management)	2	3	이만홍	미/교 789화 789수 789목 789 미/교 789()	73 / 80	☐	글로벌 국제경영, 경영정보, GBT, 국제금융 전공/이중/부 인정
54		서울	전공	경영학전공	D01405403	재무관리 (Financial Accounting (1))	2	3	나경중	미/교 456화 456수 456목 456 미/교 456()	35 / 80	☐	글로벌 국제경영, 경제학, 경영정보, GBT, 국제금융 전공/이중/부 인정
55		서울	전공	경영학전공	D01405201	재무관리 (Financial Accounting (1))	2	3	나경중	미/교 123화 123수 123목 123 미/교 123()	32 / 80	☐	글로벌 국제경영, 경제학, 경영정보, GBT, 국제금융 전공/이중/부 인정
56		서울	전공	경영학전공	D03210101	운영관리 (Operation Management)	2	3	박만홍	미/교 123화 123수 123목 123 미/교 123()	32 / 80	☐	글로벌 국제경영, 경영정보, GBT, 전공/이중/부 인정
57		서울	전공	경제학전공	D03310101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2	3	이효창	미/교 123화 123수 123목 123 미/교 123()	45 / 60	☐	글로벌 국제경영, 경제학, 경영정보, GBT, 국제금융 전공/이중/부 인정

F : 원어민강의(Foreign language Instruction) / O : 온라인강의(On-line)

No.	선택	캠퍼스	구분	학년	학수번호	강좌유형	교과목명	학점	담당교수	강의시간/강의실	재수강	비고
***** 수강신청 내역이 없습니다!(No class has been chosen yet!) *****												

계절학기는 1학과와 2학과 사이 1.5학과라 불릴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수강한다. 다양한 이유로 학생들은 계절학기를 수강하려 하지만 모든 학생이 이를 신청할 수는 없다. 현재 계절학기의 강의를 학생들의 의견과 수요조사를 반영해 개설되고 있다. 수요가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강의는 개설되지 않는다. 수요에 따라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계절학기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그렇지 않은 학과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4 면에서 계속
글 · 사진 홍주연 기자 95m52535@hufs.ac.kr

2018 HUFS 출판문화상 시상식 개최

이번달 14일, 우리학교 총장실에서 '2018 HUFS 출판문화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매 해 개교기념일과 책의 날을 기념해 우리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은 한 해 동안 발간된 도서 중 지식출판콘텐츠원의 명예와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도서를 선정해 감사를 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지난해 4월부터 이번 해 3월까지를 기준으로 △한국고전번역원 저자 '고전사전' △최준란 저자 '책문화공간과 도시재생' △이강국·성조림·김준한·곽재용 공동저자 '스페인어 문법 기초다지기'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18 HUFS 출판문화상'에 선정된 도서에는 상패와 함께 상금 100만 원을 수여하면서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사전은 독일의 대문호 괴테에 대한 일반 독자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발간됐다. 괴테 문학과 독일 문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발간된 책은 '2017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돼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20년 넘

게 출판문화에 몰두해 온 우리학교 최준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는 '책 문화공간과 도시재생'에서 '도시재생' 논의와 관련해 '비산업적 도시재생'을 제시했다. 이 책은 '2017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돼 우리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이 교양부문에 있어 수준 높은 도서를 출간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스페인어 문법 기초다지기'는 교내 스페인어과 교재 및 외부 판매로 총 4,500부가 판매되며 지식출판콘텐츠원 수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 HUFS 출판문화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시상식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인철 총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저술 활동을 통해 학술 가치를 높이고 대학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를 당부했으며 "우리학교의 역할이기도 한 어학도서 개발은 해당 언어 국가와의 우호 관계 기틀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작업"임을 강조했다.

이하정 부장 94haj@hufs.ac.kr

우리학교, 인천시 및 멀티캠퍼스와 4차산업 혁명에 대한 교육 협약 체결

우리학교와 인천시, (주)멀티캠퍼스가 이번 달 10일 인천시청에서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4차 산업 기술교육△외국어 △지역학 등 융합교육 플랫폼 구축 및 브랜드 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학교는 이 과정에서 △외국어△문화△지역학 등에 특화된 교육노하우를 제공한다. 멀티캠퍼스의 경우 IT역량 강화프로그램 전문성을 토대로 융합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대학생들의



해외 취·창업 진출 지원 및 국내 외국인로자와 그 가족들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며, 4차 산업분야 기술교육을 제공해 창의적 인재양성을 통한 '스마트 포용' 도시 조성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 (주)멀티캠퍼스 : 삼성 HR전문기업으로, 이러닝, 집합교육, 모바일 러닝서비스등 기업교육컨텐츠를 통해 기업교육서비스를 제공함.

이하정 부장 94haj@husf.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2018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18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18.4.23.(월) ~ 5.4.(금)	2018.6.4.(월) ~ 6.15.(금)
고사장 발표	5.9.(수) 15:00	6.20.(수) 15:00
면접전형	5.12.(토) 10:00	6.2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5.23.(수) 14:00	7.4.(수) 14:00
등록예치금 납부	5.28.(월) ~ 6.1.(금)	7.9.(월) ~ 7.13.(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학과
-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 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착처 제출
-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 가. 공통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5) 학력조회동의서 부(원본)
-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 다. 선택 제출서류
-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 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 나. 최소 3학기토 졸업 가능
-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환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교수회관 10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정형기 강의실 명명식 개최

정형기 강의실 명명식이 이번 달 16일 서울캠퍼스 법학관 701호에서 진행됐다. 고(故) 정형기 라성 정형기재단 전회장은 2012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쾌척해 왔다. 정형기 강의실 명명식은 장학사업에 애착을 보였던 고인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개최됐다.



다. 행사에선 법학관 701호를 '정형기 강의실'로 명명하고 이어 강의실 동판제막식을 진행했다. 윤승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명명식에서 김인철 총장은 "고인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국제적 감각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글로벌 로스쿨이 될 수 있도록 교수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

했다.

한편 명명식에는 △우리학교 교수진△우리학교 사이바대학 교수진△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류범선△김현지△박찬웅△전인준 등이 함께했다.

이하정 부장 94haj@hufs.ac.kr

성평등센터, 자문변호인단 위촉식 개최



성평등센터가 학내 성희롱 등 피해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우리학교 출신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된 자문변호인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우리학교 총장실에서 자문변호인단 위촉식이 개최됐다. 이날 위촉식에는 △김인철 총장△이창현 성평등센터장△박희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태연 변호사△홍민호 변호사△박소예 변호사△이지현 변호사△안주영 변호사△채다은 변호사△김태환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편, 자문변호인단은 이번 달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약 3년의 임기가 예정돼있다.

이하정 부장 94haj@hufs.ac.kr

그리스·불가리아학과, 불가리아 문화의 달 행사 열려



불가리아 문자 창제의 날 행사가 이번 달 9일 글로벌 캠퍼스 공학관 207호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이번 해 불가리아 유럽연합 이사회의 의장국 수임 기념으로 기획된 '5월 - 불가리아 문화의 달'의 첫 번째 행사이다. 행사는 채유정 불가리아학과 교수와 페터르 안도노프 주한 불가리아 대사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서 슬라브어의 근간인 불가리아 문자(키릴 문자) 창제의 날을 기념하며 1학년들의 불가리아 노래 발표와 2학년들의 번역시·불가리아 시 발표시간을 가졌다. 번역 시로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Азалия)과 윤동주 시인의 서시(Пролог)를 번역해 낭독했다. 또한 불가리아 시로는 불가리아 문자를

사랑하는 어린이들의 감상을 담은 작가 란 보시렉(Ран Болек)의 '로드나 레치(Родна Реч)'를 발표했다.

한편, 에라스무스 교환교수로 우리 학교를 방문한 게오르기 니콜로프(Георги Николов)교수는 이날 'Буквите: the letterings'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니콜로프 교수는 강연에서 룬문자부터 발전해온 슬라브 문자의 역사에 대해 깊은 통찰을 보여줬으며 채유정 교수가 이날 강연을 통역해 학생들에게 전했다.

이하정 부장 94haj@hufs.ac.kr

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제 4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우리학교 인문한국(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는 이번 달 11일 서울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제4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교·강사와 대학원생, 학부생 등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중국△일본의 참가자들은 '미디어 세미오시스'라는 주제 아래 △영화△도시△스카툰△광고△디지털△그래프△언어 등 다양한 매체 이미지와 언어 텍스트 분석을 기반으로 미디어 재현과 해석을 다루는 흥미로운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자들은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담론

의 시각적 재현을 △사회기호학△언어학△교육학 등의 학제적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매체의 다중성·상호성·황단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우리학교 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는 김백기 독일어통번역학과 교수가 단장으로 있으며 다가올 제 5회 국제학술대회에서도 아젠다 '세계·언어·삶의 세미오시스'와 관련해 학문적 자극과 성찰이 이뤄지는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하정 부장 94haj@hufs.ac.kr

국제스포츠레저학부, 2018 HUFS WOMEN'S CHAMPIONSHIP 진행



우리학교 국제스포츠레저학부가 이번 달 5일부터 6일까지 글로벌캠퍼스에서 재학생들의 주최 아래 '제 1회 2018 HUFS WOMEN'S CHAMPIONSHIP'을 진행했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학교 축구팀 FC HOLICS를 포함한 전국 15개 팀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2019 여자축구 월드컵에서의 호성적과 여자 축구의 발전을 기원하며"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또한 한국대학 여자축구연맹과 함께한 대회는 여자 축구의 발전을 위

해 참가 팀을 위한 통계 서비스가 진행됐고 한국여자 축구문화진흥협회의 선수 멘토링 이벤트 또한 함께 진행됐다. 최종 우승팀의 영예는 서울대학교 SNUWFC에게 돌아갔다.

한편 이번 대회는 △동아오츠카(주)크리오△용인시 체육협회△한국여자축구문화진흥협회△한국대학 선수트레이닝연맹(사)한국선수트레이너 협회가 후원했다.

이하정 부장 94haj@hufs.ac.kr

글캠 진로취업지원센터 '2018 상반기 찾아가는 진로취업상담' 성황리 종료

글로벌캠퍼스 진로취업지원센터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2018 상반기 찾아가는 진로취업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글로벌캠퍼스 △공학관△백년관△어문학관△후생관△기숙사 등 건물별 로비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진로 및 취업상담, 입사

서류 및 면접 클리닉 등 학생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1:1 또는 그룹 상담 형식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번 '2018 상반기 찾아가는 진로취업상담' 프로그램에는 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학기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얻고 있다.

박주원 편집장 94swj04142@hufs.ac.kr

외교통상연구센터, 제1차 통상포럼 개최

지난 4월 18일 수요일, 우리학교 LD 학부와 LT 학부 산하 외교통상연구센터(Center for Diplomatic and Trade Studies)가 서울캠퍼스에서 ‘보호무역주의 부상과 지역통상연구의 과제’를 주제로 제1차 통상포럼을 개최했다. 외교통상연구센터는 기존의 외교연구센터를 개편해 외교·통상 분야에서 학문과 실무적 경험을 융합을 목적으로 지난해 개원했다. 외교통상연구센터의 전신인 외교연구센터는 총 7차례의 외교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외교통상연구센터와 우리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통상포럼은 우리학교가 가진 강점인 해외지역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번 통상포럼에 앞서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 직접



축사를 전했다. 이후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구미팀장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조치’를 주제로 발표했고, 이현대 KIEP 중국팀 박사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중국의 통상정책’을 주제로 중국의 입장을 조망했다.

다. 이어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가 ‘미국-일본 무역분쟁의 선례’를 주제로 일본의 경험과 현재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LD·LT 학부 교수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70여명의 참석 학생들이 의제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며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박지민 부장 94pjimin0303@hufs.ac.kr

아랍어과, 모로코 국회의장 특강 실시

지난달 30일 월요일, 우리학교 아랍어과는 하비 알 말키(H.E. Habib El Malki) 모로코 국회의장을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모로코 하원 의원 6명과 함께 우리학교를 방문한 말키 모로코 국회의장은 ‘한국과 모로코 양국 관계 -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다방면에서 우리나라와 모로코 간 동반자적 관계 발전에 대해 강의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모로코 전 교육부장관과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한 말키 모로코



국회의장은 강의 이후 아랍어과 교수진과 좌담회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아랍어와 아랍문화 교육 및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학교 아랍어과 교수진의 수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아랍어과 교수진과 말키 모로코 국회의장은 향후 우리학교 아랍어과와 모로코 대학 간 학술교류 및 교수·학생 교류 활성화 방안

에 대한 논의를 끝으로 특강을 마무리했다.

박지민 부장 94pjimin0303@hufs.ac.kr

세계문화예술경영연구소, LG 아트센터 ‘달의 저편’ 극장투어 및 관람, 관객과 대화 열어

지난 17일 목요일, 우리학교 세계문화예술경영 연구소는 ‘LG 아트센터 <달의 저편> 극장투어, 관람, 관객과 대화’ 행사를 개최했다. 세계문화예술경영 연구소는 △공연기획 △무대연출△예술경영에 관심 있는 참가자를 위해 이번 ‘달의 저편’과 관련한 체험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달의 저편>을 관람하기 전, 참가자들은 무대 뒤를 탐방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배우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학교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인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라는 목적 아래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현장 실무자와 직접 만나 현장 분위기를 느끼며 오페라 공연예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숙한 관람 태도에 힘입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박지민 부장 94pjimin0303@hufs.ac.kr

러시아-CIS학과, 제7차 러시아-CIS지역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지난 4일 금요일,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의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고 우리학교 러시아연구소 HK 연구사업단이 기획한 제7차 러시아-CIS 지역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에는 무라트 마메달리예바(Murat Mamedaliev) 주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 부부를 초청해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 개관과 함께 중앙아시아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정학적 위상 △역할 △문화사관습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강 ‘위대한 실크로드의 심장 -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무라트 대사는 역사의 발자취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이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중심지임을 설명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이 세계적으로 풍부한 가스 생산국으로서 카스피해 연안 가스전 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을 둘러싼 정치경제학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엔으로부터 영세중립국으로 인정받아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스피해 해역에 건설된 국제 항구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란을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향후 투르크메니스탄이 중앙아시아와 중동,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 교통의 허브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제2강에서는 무라드 대사 부인인 따제굴 마메달리예바 여사가 ‘투르크메니스탄 문화와 관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따제굴 여사는 손수 준비해온 다양한 민속 공예품들을 보여주며 투르크메니스탄의 전통적·세계적인 예술작품들을 설명했고, 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인의 삶과 철학을 전달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의 카펫은 이미 14세기 유럽에서 세계 최고의 예술성을 인정받았고, 아할테케 말(종마)은 단순한 가축이 아닌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로, 그리고 민족의 자부심으로 인식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주한 대사 부부는 대학원생들에게 투르크메니스탄에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가운데 투르크메니스탄과 우리나라 간 양국 관계의 우호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강연을 마쳤다.

박지민 부장 94pjimin0303@hufs.ac.kr

중앙아시아연구소 신흥지역연구사업단, 2018학년도 국제 세미나 열어



지난 10일 목요일, 우리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신흥지역연구사업단은 서울캠퍼스 교수회관에서 △한국·몽골·부라트 사회정책학회(KOMOBSPA)△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KVHS)△한국사회정책연구원(KSP)과 공동주관해 2018학년도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의 사회보장 현황과 나아갈 방향’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부라트△몽골△아제르바이잔△터키의 전문가들이 다

수 참석했으며 약 40명의 발표자 및 토론자들이 회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국가 간 사회정책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며 더 나은 정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의료보장문제△노인복지문제△아동문제△노동문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정책과 관련된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짐으로써 참석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박지민 부장 94pjimin0303@hufs.ac.kr

기초부터 고급까지!
해외연수 그 이상의 효과
실용 회화능력 집중 향상!
국내 최고의 외국어마스터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2018년 상반기 외국어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과정소개]

FLC 외국어교육과정은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해외연수 및 유학준비생, 인사혁신처 추천 공무원 및 일반 공무원,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회사원, 그 외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체계적이고 강도높은 교육을 통해 실제 의사소통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켜 해외연수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외국어마스터 과정으로 특히, 과정 이수 후 교육성과 및 만족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1. 교육일정

[10주 주간/야간 정규과정 :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균형있는 통합교육]

구분	주간	야간
방수기간	2018. 06. 11(월)부터~	
교육기간	2018. 08. 06(월)~12. 21(금)	
교육시간	09:30~16:20	18:40~21:30
총 교육시간	1월 6시간/월~금/주5일	1월 3시간/월~금/주5일
총 교육시간	총 600시간	총 300시간
방문성시험 (Level Test)	07. 21(토) 예정	
교육비	3,737,000원	1,821,000원

[10주 야간회화과정 : 단기간 실용 회화능력 집중 향상 교육]

구분	야간 11기	야간 11기
방수기간	2018. 06. 25(월)부터~	2018. 09. 03(월)부터~
교육기간	2018. 08. 06(월)~10. 12(금)	2018. 10. 15(토)~12. 21(금)
교육시간	19:40~21:30	19:40~21:30
총 교육시간	1월 2시간/월~토/주4일	1월 2시간/월~토/주4일
총 교육시간	총 80시간	총 80시간
방문성시험 (Level Test)	07. 21(토) 예정	10월 초(별도공지)
교육비	일반인: 594,000원 외국인(동문): 482,000원	일반인: 594,000원 외국인(동문): 482,000원

[10주 주말특별과정 : 단기간 실용 의사소통능력 집중 향상 교육]

구분	주말(5)
방수기간	2018. 06. 11(월)부터~
교육기간	2018. 08. 25(토)~11. 03(토)
교육시간	10:00~17:00/월 6시간/토요일/주1회
총 교육시간	총 60시간
방문성시험 (Level Test)	08. 11(토) 예정
교육비	(당초 외국어연수평가원)

※단, 위 교육비는 일반인 기준의 교육비이며, 인사혁신처 추천 공무원 및 별도 위탁교육생의 경우 교육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 문의

2. 교육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마인어 외
- 과정별 특성에 따라 모집언어는 다를 수 있으며 모집공고시 자세한 교육언어 참조
- 언어/레벨별 적정인원 모집시 개설되며 모집인원 미달시에는 개설되지 않음

3. 교육대상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해외연수 및 유학준비생, 인사혁신처 추천 중앙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그 외 일반인 등 제한없음.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홈페이지 수강신청 및 교육비 결제

- STEP 2: 접수확인

- 과정진행 절차: 수강신청→교육비결제→레벨테스트→반편성완료→개강회정
- 수강신청 바로가기→과정 및 언어선택→원서작성→교육비 결제
- 홈페이지 수강신청 및 교육비 결제(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
- 교육비 결제: 인터넷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가능
- 수강신청 및 교육비 결제 완료 후 최종 접수여 확인
- 무통장 입금의 경우 반드시 본인명의로 정확히 입금 후 입금확인

5. 반편성 시험(레벨 테스트)

- 시험내용: 독해, 인터뷰
- 독해는 영어 30문항 내외, 기타 외국어 40~50문항
- 인터뷰는 11 명대면 인터뷰로 진행되며 약 5~10분 소요
- 단, 총 소요시간은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1시간 30분 소요
- 반편성 시험은 개인별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시험으로 당락은 없음
- 반편성 시험의 내용, 구성, 진행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취소 및 환불안내

- 개강일 전까지: 전액만, 전월로 제외 환불 가능
- 20주(주간/야간): 개강 후 6주까지 교육비-전월로×60% 환불
- 10주(야간): 개강 후 2주까지 교육비-전월로×70% 환불
- 10주(주말): 개강 후 3주까지 교육비-전월로×70% 환불

- 환불시 소정의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며 환불기간 이후 일체 환불이 되지 않음
- 반편성시험(Level Test) 이후 환불시에는 전월로(30,000원)가 공제됨
- 환불시 홈페이지(자세한사항-자료실) 등록취소신청서 작성 후 개강시만 함께 제출
- 환불신청 후 실제 환불까지는 약 2~3주 정도 소요됨

7. 기타사항

-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를 통한 수준별 반편성 및 맞춤수업
- 언어별 특성 및 교육생 레벨에 따라 수업시간, 교과목은 다르게 편성됨
-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신청 외 인사혁신처 추천 및 기관, 기업체 위탁교육 신청의 경우 별도 문의
- 정규과정 외 기관 및 기업체를 위한 맞춤형 위탁과정 상시개설
- 기관 및 기업체 위탁과정의 경우 인원제한은 없으며 교육기간, 요일, 시간 등 자유설계 가능
- 과정 종료시 수료증 발급, 과정별 수료요건(출결 및 평가) 별도 문의

8. 문의처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02-2173-2524-5 FAX.02-962-0575
http://fltc.hufs.ac.kr | www.facebook.com/hufsltc | fltc@hufs.ac.kr

FLC PROGRAM

20주 주간/야간과정 : 2월, 8월 개강 | 10주 야간과정 : 2월, 4월, 8월, 10월 개강 | 10주 주말과정 : 2월, 8월 개강 | 방학특별과정(겨울/여름) : 1월, 7월 개강 | FLEX시험 대비과정(공무원유치시험대비) : 3월, 9월 개강 | 대학원외국어시험대비과정 : 3월, 9월 개강 | 통번역기초과정 : 3월, 9월 개강 | DELT시험준비과정 : 시험일 기준 2개월 전 개강 | TOMER(터키어)과정 : 2월, 4월, 8월, 10월 개강 | 기업체·기관 위탁과정 : 수시 개강



갑과 을, 학생 인권 현주소는?

이달 17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총학생회와 사회학과 대학원생 대책위원회가 △갑질△횡령△성희롱△폭언 의혹이 제기된 사회학과 A 교수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다. 서울대 인권센터에 따르면 A 교수는 2012년부터 4년간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왔다. 서울대 총학은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

며 지난 3월부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반발이 가세하자 지난 15일 서울대는 징계 수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처럼 학생 인권 침해가 화두에 오른 상황에서 문제의 사려와 원인, 해결 방안 등을 알아보도록 하자.

◆업무 비용 횡령, 인격 모독적 발언..... 교수 갑질 사례로 얼룩진 대학

지난해 3월 서울대 사회학과 A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폭언을 하고 냉장고 청소를 시키는 등의 ‘갑질’ 의혹으로 학교 인권센터에 제소됐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갑질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연구비 1500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되면서 교육부는 해당 교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지난달 24일 A교수는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1일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A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학교 측의 결정에 학생들은 징계 수위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해당 교수의 파면을 주장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신재용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단식에 나섰고, “해당 교수를 파면하지 않으면 서울대 내의 권력형 성폭력 문제는 끈질기게 남을 것”이라며 “인권이 온전히 지켜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1일 JTBC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모 교수의 폭언 내용이 담긴 파일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학생들의 인건비와 관련된 의혹뿐만 아니라 인격 모독성 발언 및 성희롱 또한 일삼았다. 파일을 제보한 대학원생은 모 교수가 대학·정부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했다고 말했다. 파일에는 논문 지도 중 욕설이나 인격 모욕적인 발언, 술자리에서의 성희롱적 발언도 담겨있었다. 해당 교수는 이러한 논란에 “(인건비를)학생들 등록금을 내거나 학회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성희롱적인 발언도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질문 대답 못하면 욕설과 폭행..... 교·강사 폭언·폭행 사례는?

2016년 시립대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2016년 12월 8일 시립대신문 페이스북 페이지는 ‘저는 폭력의 현장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이는 한 전공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벌△언어폭력△인격모독을 일삼았다고 전했다. 교수는 대나무 매나 주먹으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을 한 학생들을 폭행했고, 이와 함께 폭언을 퍼부었다. 또한 강의 중 모든 여학생들에게 결혼 및 출산계획을 물어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하거나 2명 이하의 자녀를 출산하겠다고 밝힌 여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대자보 작성자는 앞으로 학생들을 자신이 겪었던 폭력의 현장으로 내몰고 싶지 않라며 대학본부가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해당교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우리학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논란된 바 있다. 우리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대나무숲의 지난해 5월 20일자 25500번째 제보에 따르면 작성자는 “한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학생을 때렸다”며 “수도 없이 많은 폭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이뤄진 취재에서 오마이뉴스의 해당 기사는 교수의 폭행과 폭언에 대한 학생 증언과 실제 교수의 폭언이 담긴 음성 파일을 입수했다. 파일 확인 결과 해당 교수는 수업 중

△각종 인격 모독△외국인 비하△성희롱성 발언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해당 교수는 문제가 된 수업 중 한 수업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학교 측은 “(해당 교수가)책임감을 느끼고 사과할 것을 약속했으므로 학교에서 조치를 취할 것은 아니다”라고 사건을 일단락 했다.

◆교수에게 집중된 권한, 학내 인권 기구 부족..... 피해 확대 이유는?

학생 인권 침해 사례의 발생 원인으로 교수에게 학사 운영 권력이 집중돼있는 폐쇄적인 구조가 있다. 학부 교수에게 학점 부여 등 전반적인 학사 관리에 대한 권한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대학원의 경우 지도 교수의 영향력은 더욱 크다. 대학원생의 논문 심사 및 채용에 있어 전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학부 과정에 비해 연구 내용이 세분화된 만큼 대학원 연구실은 좁은 학계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수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으면 새로운 지도교수를 찾기도 힘들뿐더러 심한 경우 학계 퇴출을 고려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기에 부당한 요구임에도 거절하기 힘든 구조적 어려움이 야기돼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7월 13일 서울대 대학원생 인권단체모임 회원들은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대학원생 인권 침해 사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대저널에 따르면 이날 시위를 주최한 대학원생 A씨는 “대학원생들은 부당대우를 받아도 교수의 눈치를 보며 침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인권 대변 기구의 수가 부족하다는 비판 또한 문제의 원인으로 제기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237개 대학을 대상으로 인권센터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97개교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19개교에 불과했다. 노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대학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인권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대학 내 인권센터가 설치돼있더라도 학생들이 센터를 신뢰하지 않아 실질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부산대학교의 한 대학원생은 학내 인권센터에 교수의 성추행을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 사실을 가해 교수가 알게 돼 조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해당 교수로부터 연락이 오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일부 대학은 인권센터가 교내 일반 부서처럼 운영돼 독립적인 조사 및 운영이 어렵고 운영 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찾아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 학생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강의평가 문항 추가, 대응 세칙 세부 조항 마련..... 총학 차원의 대응책은?

우리학교 안중헌(서양어·독일어 16) 총학생회장은 학생 인권 침해 사례의 제도적 대처방안으로 강의평가 항목에 교·강사의 수업 중 △차별△혐오△인권 침해 발언 여부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교무처에서 (해당 방안의 시행이)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방안은 빠르면 다음 학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

나 총학 차원에서 인권센터에 관련한 논의는 아직 없었다”며 “지금은 성평등 센터의 기능 내실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장은 “총학은 문제 사건의 공론화를 가능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및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선거공약집 인권침해사건대응세칙의 세부 사항에 대해 회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부 사항은 이번 해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흡하더라도 다음 총학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선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인권기구 설치, 피해 신고 접수 필수..... 학교 차원의 대응책은?

학내 구성원의 인권 대변 기구 설치 및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일각에서는 소통 기구를 통해 학내 구성원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학교 김현숙 학생지원팀장은 학내 인권센터 설치와 관련해 “현재 우리 학교에는 인권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최근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학 내 인

권센터 설립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만약 이 법이 제정된다면 학교가 이 법안을 이행하기 위해서 학교 내 직제를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신고가 접수돼야 조사를 할 수 있다”며 “학생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팀장은 “최근에는 수업 중 교수 폭언, 폭행에 대해서 공식적인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다”며 “과거 교수님과의 문제로 수업 중 갈등이 발생했다는 학생 민원이 접수돼 해당 학생의 문제 해결을 지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학생이 언제든지 학생지원처로 찾아와 문제 해결의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고유진 기자 95howcuty@hufs.ac.kr

www.korean.ac.kr

2018학년도 여름학기(제42기)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원양성과정(KFL)

- 국내 유일의 언어권별(중, 영, 일) 맞춤형 이론 수업 진행
- 실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실습 수업 실시
- 40년 전통의 한국어교육의 산실 한국외대 한국어교육과의 노하우 전수
- 한국어교육 권위자 허용 원장(Marquis Who's Who 등재) 직접 강의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대비 특강 제공
- 우수 수료자 대상 본 원 강사 채용 시 가산점 부여

2018학년도 여름학기(제42기) 신입생 모집안내

교육일정

2018년 6월 25일(월) ~ 7월 27일(금) 월~금 / 9:30 ~ 17:00 (총 130시간 과정)

원서접수 및 지원자격

원서접수 : 2018년 5월 28일(월) ~ 6월 11일(월)
지원자격 : 고교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
(단,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TOPIK 6급 소지자)
접수방법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상세 내용 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www.korean.ac.kr)
전형료 : 20,000원
등록금 : 1,415,000원(교재비 포함)

문의처

한국어문화교육원 운영팀(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외국어연수평가원 101호)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전화 : 02-2173-2260 / 이메일 : cklae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CENTER FOR KOREAN LANGUAGE & CULTUR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글캠 기숙사 사생회, 그것이 알고 싶다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흡스돔(HUFS DORM)엔 이번 달 기준 남학생 977명, 여학생 1,260명이 거주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만큼 우리학교는 사생들의 편의와 안전, 더 나아가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생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생회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문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기숙사생(이하 사생)들은 입사 전 기숙사비 납부를 공지 받는다. 이때 사생들은 입사비 및 보증금과 더불어 ‘사생회비’를 필수로 납부해야한다. 그러나 사생회비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사생들은 의무적인 납부가 이해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무 처리 및 행사 진행의 미숙함도 사생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 중 하나다. 각종 간식 행사와 축제가 진행될 때마다 아슬픈 진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생들에게 돌아간다. 이에 따라 △사생회에 대한 정보△미숙한 일처리 방식에 대한 사생들의 입장△사생회 관계자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생회란?

흡스돔(HUFS DORM) 운영 규정 제6장 22조에 따르면, 사생회 운영 목적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사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사생회의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그 구성과 활동은 사생회의 회칙에 따른다. 즉, 사생회는 학교 측에 사생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매개체이자 만족스러운 기숙 생활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사생 자치 기구다. 사생회 임원 선거는 매 해 11월에 치러지며 △총사생장 △여사생장△남사생장을 한 팀으로 후보 등록이 이뤄진다. 선거를 통해 임원이 당선되면 총사생장이 부원들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사생회가 구성된다. 만약 정족수 미달로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사생회는 비상대책 위원회로 대체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직전에 있던 사생회로 구성되며 이는 모든 행정 · 의결 권한을 갖는다. 현재 흡스돔(HUFS DORM) 사생회는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사생회는 △기획국△사무국△홍보국△총사생장으로 조직돼 있다. 사무국은 사생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기획국은 기숙사의 모든 행사를 제안 · 기획한다. 행사 진행 시 필요한 물품에 대한 자료 조사부터 업체 의뢰까지 기획 단계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기획국에서 행사를 기획하면 사무국은 행사에 대한 예산안을 작성하고 기숙사 운영팀의 검토를 받는다. 이후 사생회비가 지급되면 행사를 진행하며 결제 영수증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홍보국은 사생회 행사를 홍보하는 업무를 맡는다. △사생회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물 관리△행사 포스터 제작△카드 뉴스 작성 등 홍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총사생장은 세 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사생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문의 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 후 기숙사 운영위원회에 전달해 사생과 학교 간 소통의 창구로서 노력하고 있다.

사생회는 정기회의 및 정기 사생총회를 통해 설립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정기회의는 모든 부서가 모여 업무 보고를 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기숙사 운영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정기 사생총회는 기숙사 최고의 의결 기구로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결△사무 보고△사생회 활동 보고△건의사항 수렴 등을 진행한다. 하지만 개회를 위해선 총 사생 인원의 1/10이 참석해야 함에도 저조한 참여율로 2014년 이후 정기 사생총회는 개최되지 못했다.

◆뜨거운 감자, 사생회비

사생회비는 입사비 및 보증금과 더불어 필수로 납부해야하는 비용이다. 현재 사생회비는 일 인당 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사생들은 금액의 크기를 떠나 타당한 이유에 대한 공지 없이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지수 총사생장은 “사생회비는 사생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안락한 기숙사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이라며 “사생회가 처음 설립됐을 때부터 사생회비를 걷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그는 “사생들이 사생회비를 최대한 누리고 이에 대한 불만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수 총사생장의 말에 따르면 최근 사생회비는 사생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집중 사용됐다. 실제로 상반기에 사생회비는 △입사 시 제공하는 택배 서비스△간식 행사△사진 공모전△축제 등을 위해 사용됐다. 더불어 사생회비의 자세한 사용 내역은 정기 사생총회에서 구매 내역 목록 및 영수증을 통해 사생들에게 공개됐다.

< 5/16 기숙사 축제 청량제 및 사생회비 관련 공지 >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총사생회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기숙사 축제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 기숙사 축제 클럽 운영 관련

기숙사 축제에 클럽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문 조사 인원의 82%의 사생 분들이 찬성의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클럽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기존에 클럽을 진행하던 식당 바둑의 문제로 인해 장소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클럽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럽 대신 새로운 테마를 잡고 청량제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이번 축제가 구성되었습니다.

나. 무대 취소에 대한 위약금 및 천막 손해 배상 관련

(1) 업체와 예기한 결과 행사 취소에 대한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후에 있을 행사에 추가 비용 없이 행사 시설 및 장비를 제공 받기로 협의하였습니다. (2) 천막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되었기 때문에 사생회 측으로 별도의 손해 배상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 푸드트럭 입장

(1) 5월 2일, 중개업체에게 푸드트럭 입장 문의를 하였습니다. (2) 5월 11일~13일, 총 3대의 트럭을 구하였습니다. (2) 5월 13일~15일, 상호간의 계약서가 필요하여 작성을 하려고 하였으나 주말, 출장 등의 이유로 절차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3) 5월 14일,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바뀌어 재차 확인했지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15일 오후 계약서 쓰기로 하였습니다. (4) 5월 15일, 계약서 쓰는 것을 밤 11시까지 미루었고, 23시~24시 사이, 비가 와 안전상과 이유로 푸드트럭을 보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푸드트럭의 경우 원래 사생회 측에서 중개 업체에 트럭 대수에 맞게 중개료를 내고 각 푸드트럭은 사생회 측으로 입점료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청량제는 이미 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입점료를 받지 않고, 대신 푸드트럭 측에서 소정의 푸른을 발행해주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 푸른은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했던 이벤트를 사용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중개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중개료에 관련해서는, 사생회와 푸드트럭 측 사이에서 중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라. 물리마켓 셀러

물리마켓을 준비한 셀러 분들 또한 폭우로 인한 축제가 취소됨으로써 물품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축제 취소 후 셀러 분들의 요청으로 식당에서 물리마켓과 함께 작은 행사를 마련해 보려고 했지만 접근성 및 기타 여러 문제로 인해 준비한 물품들을 이번 달 23일에 있는 FBS와 동아리 연합회와 행사(볼과 롤 사이)에 참여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사생회비 공개

총사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매 학기 정기 사생총회에서 사생회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고, 사생회비 관련하여 문의주시는 사생 분들에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사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페이스북 메시지나 각 등 비상연락망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거나 찾아오시면 영수증들과 함께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생 분들에게 이번 행사로 인하여 여러 문제를 신경 쓰게 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건의 사항이 있다면 페이스북 메시지나 각 등에 있는 비상 연락망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2300명 사생분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항상 신경 쓰는 총사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흡한 행사 운영방식

지난달 24일, 사생회는 중간고사 기간을 맞이해 사생들을 위한 간식 행사를 진행했다. 사전에 행사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며 많은 사생들의 참여를 유도했으나 참여 사생 수에 비해 간식 수량이 현저히 적었고 많은 사생들이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에 더해 세치기를 하고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등 혼란이 벌어지면서 사생회는 미흡한 행사 준비 및 진행으로 비판을 받았다. 비판에 대해 김지수 총사생장은 “인원공지를 미리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미흡했던 준비 과정에 대해 사과했다. 또한 그는 “사실 간식 수량은 총학 및 단과대에서 간식 행사를 진행할 때 준비한 수량을 참고했다”며 “우리학교 총 학생 수가 8000명 정도 되는데 총학에서 600인분을 준비하고 행사 후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총 사생 수가 2000명이니 200인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자세한 사정을 전했다.

또한 지난 16일, 집중 호우로 인해 예정됐던 기숙사 축제가 취소됐다. 당시 사생회 측에선 축제 당일 비가 온다는 예보를 접했음에도 축제를 감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날씨에 대한 대비책으로 천막과 우비를 준비했으며, 푸드 트럭 또한 날씨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함을 내세워 축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축제 당일 집중 호우로 인해 천막이 무너지고, 축제 진행에 큰 차질이 생기면서 결국 행사는 취소됐다. 사생들은 △장비 대여료 및 무대 설치비에 대한 위약금△푸드 트럭 위약금△천막 수리비용 등을 언급하며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한 사생회를 비판했다. 이에 총 사생회는 지난 18일 총사생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에 따른 답변을 게재했다. 본문에 따르면 “음향 장비 업체와 예기한 결과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천막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됐기 때문에 별도의 수리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푸드 트럭에 대해서는 계약 과정을 상세히 나열하며 “푸드 트럭 측에서 계약서 쓰는 것을 계속 미루다 축제 전날 밤 11시와 12시 사이에 갑자기 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는 통보를 했으므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위약금은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지수 총사생장은 날씨 문제와 관련해 “날씨를 일주일 전부터 매일 확인했다”며 “분명 전날까지도 약한 빗줄기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당일 예보와 달리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매우 당황했다”고 전했다. 축제를 진행 도중 취소한 점에 대해서는 “축제 다음 주에 교육방송국과 동아리 연합회가 주최하는 공연이 예정돼 있고, 그 다음 주는 기말시험을 앞찍 보는 사생들이 있을 수 있어 소음의 우려 때문에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미흡한 진행에 대해 마지막으로 총사생장은 “사생들에게 축제와 관련해 많은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현재 사생회는 사정상 10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는 터라 많이 부족하지만,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금만 믿고 기다려달라”며 “사생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생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총사생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또한 김지수 총사생장은 “사생들이 사생회비의 ‘강제성’ 부분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기숙사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생회비를 강제 납부에서 자율 납부로 바꾸는 안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고 학교의 승인이 남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또한 사생회비 자율 납부에 따른 재정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율화가 된 적이 없어 예상하기 어렵다”며 “얼마나 많은 사생들이 납부하느냐에 따라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납부한 사생들에게 차별화를 주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계는 금융전쟁 중 - 미국의 금리인상정책과 지구촌 경제 -



백재승 교수
국제금융학과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40%로 올리는 비정상적인 금리정책을 실행했다. 기준금리는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기준으로 삼기 위해 결정하는 금리로서 경제활동에 필요한 예금 또는 대출 금리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아르헨티나의 실제 시장금리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금리를 높이는 것은 외화자금의 유출을 막고 자국통화 가치를 방어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이미 아르헨티나는 금융위기 국면에 처해 국제통화기금(IMF)에 3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터키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12.75%에서 13.5%로 대폭 상향해 환율 폭등에 대비하고 자국 통화인 리라화 가치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

유럽 지역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금리로서 예금을 하면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을 보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저축보다 소비를 촉진해 경기를 부양하거나 통화량을 증가시켜 자국통화 가치를 낮춘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에서 자국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된다. 이렇게 되면 자국 제품에 수요가 많이 생기고 수출 시장은 좋아지는 반면 타국 제품은 잘 팔리지 않게 된다. 이런 과정으로 금융시장상황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미국은 2016년 초 0~0.25%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최근 1.75%까지 상승시켰다. 이것은 아르헨티나, 터키와 같은 신흥국이 자국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금리를 크게 인상하게 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 자본시장에 투자돼 있던 자본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높은 금리를 좇아 미국으로 쏠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흥국의 주가가 하락하고 통화가치도 급락하게 된다. 이와 같은 통화 가치 하락과 자금유출을 막기 위해 신흥국 정부는 금리인상에 나서게 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수준을 형성한다. 미국 금리인상이 빨라지고 국제유가도 상승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터키 등

경기침체 △1990년대와 2002년 중남미 통화위기 △1995년 러시아 통화위기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 유럽 재정위기 △2014년 중국 경기 위축, 중국 금융 시장발 위기 △2015년 선진국의 양적완화(Q.E.) 축소 등에 따른 출구전략으로 신흥국 경제위기가 고조된 것처럼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금융시장을 단순한 '돈 시장'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금융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이 실물부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고 어떻게 실물경제가 금융시장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과 중국을 가장 큰 대외 교역국가로 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5일 뉴욕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17개 신흥 국가를 조사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이 한국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연합뉴스참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견고한 경제체질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선제적 경제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세계 9위 외환보유고 국가로서 급격한 환율변동을 대비할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이어 △UAE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와프(currency swap)를 체결해 아시아 자원부국들과 앞으로 다칠 수 있는 국내 금융시장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흥국 상황과 달리 △미국 △유럽 △일본의 금융시장은 경기가 살아나며 완전한 회복기와 호황기를 보인다. 주요 선진국의 통화는 기축통화로서 가치가 낮아져도 수요가 있지만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려 한다. 다시 말하면 어느 국가든 결제수단으로 달러(\$) △유로(€) △엔(¥)을 받지만 멕시코 페소(Peso), 인도네시아 루피(Rp)는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국민 외에 외부와 경제활동이 단절된다. 따라서 신흥국들은 주요 선진국들처럼 통화를 많이 찍어낼 수 없어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를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선진국들로 인해 금융위기가 야기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렇듯 지구촌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금리 변동과 이에 따른 통화 가치 변화가 각국 경제상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리 없는 금융전쟁이다. 금융 지식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시기이다.



그림과 같이 자국의 통화 가치나 경제상황이 불안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금융활동의 대표적 지표인 금리는 해당 국가의 대내외 경제상황을 반영한다. 일본,

일부 신흥국가에서는 이른바 6월 금융위기설이 퍼지고 있다.

금융위기는 역사의 순환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1985년 플라자조약 이후 엔화절상으로 일본

외국인이 바라본 우리나라 여행!

이번 비정상회담은 우리학교 석사과정에 있는 밍(Miwanta Matrong)과 함께 한다. 우리학교 학생들도 우리나라와 가까운 태국을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태국 여행보다는 외국인이 바라본 우리나라 여행에 알아본다면 흥미로울 것 같아 인터뷰를 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곳을 여행해 본 밍은 기본에 대한 소감을 말해줬다. 그녀는 3년 전에 우리학교 글로벌 캠퍼스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웠고 지난해부터 식사 과정을 시작했다. 그녀가 다녔던 한국 여행은 어땠을까?



내가 처음 갔던 도시는 전라북도 전주였어. 한국에 오자마자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에서 공학 교육을 받았어. 메트로폴리스 느낌이 강한 서울과 달리 전주는 한국 전통을 느끼기에 좋은 도시였어. 전주는 한국 전통 문화를 잘 보존한 곳이라 한국 역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시야. 한옥을 체험해 보고 한복을 입어보면서 한국 전통을 느꼈다고 생각해. 그리고 역시 전라도는 음식! 음식이 정말 맛있어서 행복했어.

그리고 나는 울릉도와 독도도 여행했어. 울릉도는 태국 섬과 다른 한국 섬만의 색채를 가져 매력적인 곳이었어. 울릉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좋았지만, '사람이 사는 섬' 그 자체가 내 마음에 와닿았어. 그리고 독도에 많은 군인이 있는 게 신기했어. 군인이 민간인보다 많은 섬이라고 하더라고.

나는 비록 공부하러 왔지만, 한국 여행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생각해. 내가 한국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을 경험하고 한국 문화를 알아가는 것이니까. 한국 곳곳을 여행하면서 '한국이 이런 매력도 있구나'라고 항상 새로운 점을 찾는 것 같아.



박지민 부장 94pjimin0303@hufs.ac.kr



▲CIUTI(세계통역번역대학원(교)협회) 정회원교 가입 기념식

2004년 5월 12일, 아시아 대학 최초로 세계통역번역대학원협회(CIUTI)에 가입하다.



▲한국외대 동시통역대학원 개원 및 입학식(1979)



▲CIUTI 가입 10주년 기념식(2014)

1960~70년대 수출 중심 경제성장을 추구하던 우리나라는 세계와 긴밀한 소통, 효율적인 무역 교류를 위해 통역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러나 당시 전문 교육기관은 유럽과 미국 등 극소수 국가에 한정돼 있었다. 이에 우리학교는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그간 쌓아온 외국어 교육·연구 노하우를 활용해 1979년 동시통역대학원(現 통번역대학원)을 개설했다. '국제적 안목과 전문기술적 소양을 겸비한 국제회의 통역사 및 전문 번역사 양성'을 목표로, 통번역 분야의 학술이론 정립과 교육방법론 개발, 타 학문과 협력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을 사명으로 삼아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인재 양성의 큰 뜻을 품고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당시 통번역 과정으로 설치된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말레이어 △인도네시아어(협동과정) 등 9개였는데 이러한 통번역대학원 설치에는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최초였다. 이로 인해 일본과 중국에서도 많은 학생이 통역사가 되기 위해 우리학교로 유학을 왔다. 우리학교 통번역대학원은 고도의 전문성과 희소성을 바탕으로 설립 직후부터 독보적인 명성을 확보했다. 이후 관련 학계의 빠른 성장을 바탕으로 1984년에는 통역대학원 내에 통역·번역센터(現 통번역센터)를 설립했으며, 1997년에는 당시 국내 유일 통번역 종합연구기관으로 통번역연구소가 출범했다. 1998년 통번역대학원은 교육부로부터 전문대학원 승격을 승인받아 박사과정도 개설했다.

2004년 5월 12일에는 아시아 최초로 세계통역번역대학원협회(CIUTI, Conférence Internationale Permanente d'Instituts Universitaires de Traducteurs et Interprètes)에

정회원교로 가입했다. 1960년 출범한 CIUTI는 세계 유수의 통번역대학 및 대학원만을 회원교로 하는 세계에 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통번역 국제 협회다. 협회가 입절차는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이는 △입학과 졸업 절차 △수업 내용 △교수법 등을 포함한 모든 교육 과정과 교수 및 강사진에 대한 평가는 물론 시설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방문 평가를 수반한다. 중국 베이징대학교는 협회 회원교가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만리장성에 현수막을 걸고, 부총리가 직접 축하 연설을 할 정도였다. 2004년 우리학교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 아시아 첫 회원교가 됐다. 이는 국가적인 쾌거로 지금도 국내에서는 우리학교 통번역대학원이 유일한 가입 기관이다.

통번역대학원 출신 통역사와 교수는 △1986년 아시아 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1993년 대전엑스포 △2000년 ASEM 정상회담 △2002년 월드컵 등 국가적인 국제행사에서도 크게 활약했다. 그밖에도 언어별로 크고 작은 국제행사의 동시통역은 물론이고, 각급 국제대회 조직위원회 △수석통역사 △통역조정관 △통역담당관 △통역자문 등을 담당했다. 통역의 기술적 발전, 노하우의 축적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제행사 유치는 크게 성장했다.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국제회의컨벤션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63~1967년에 협회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행사가 단 4건만 열렸으나, 2008~2012년에는 무려 1,103회가 개최됐다. 물론 이러한 성장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국제 신장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내부에는 우리학교 통번역대학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과 통번역으로 크게 활약한 외대인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 기록 및 사진 제공: 역사관

계절학기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

종강이 다가오는 5월, 학생들은 서로 다른 고민을 한다. 어떤 학생들은 계절학기 수강신청만을 기다리는 반면 또 다른 학생들에게는 계절학기 수강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학생들의 의견과 수요조사를 반영해 개설되는 계절학기이지만 단과대 및 학과 별 상이한 수업 개수로 인해 수강기회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선택에 따라 개설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학생에게 계절학기는 고마운 존재지만 그렇지 않은 학과의 학생들에겐 무용지물이다.

한편 △이중전공·부전공으로 인한 졸업이수학점 증가△평균 학점 상승을 위한 재수강△조기졸업△전공필수 혹은 졸업필수 과목 수강 등 이유로 계절학기를 필요로 하는 학생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절학기의 순기능과 그렇지 못한 경우들, 나아가 운영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계절학기, 누군가에겐 오아시스

계절학기의 순기능은 수강신청이 치열한 과목을 신청하기 수월하다는 점과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학점을 채울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신재함(경영·경영17)씨는 “2학년 전공필수 과목이 다섯 과목인데 2학년 1학기에 그 중 한 과목만 수강신청을 성공했다”며 “경영학과 또한 인기 있는 교수님이나 특정 시간에 수강신청이 몰리는 현상이 강하다는 이유에서 수강신청이 치열해지고 결국엔 계절학기를 택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좋은 강의를 듣고 싶은 마음은 학생들 모두 같다는 점에서 계절학기라는 제도를 통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 한다”며 “1학년 전공필수 강의의 경우 1학년 때 수강하지 못하면 여석이 점차 적어져 강의 신청이 더욱 어려워지고 이중전공·부전공학생들 뿐만 아니라 재수강생들까지 함께 수강신청을 하다 보니 계절학기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수강신청이 치열하기로 유명한 경영대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전공 필수 수업을 신청하지 못해 강의매매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학교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타임’에선 원하는 강의를 얻기 위해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현재 경영대학 학생은 956명으로 이중전공·부전공생들까지 합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해당학과 강의를 수강한다. 경영학전공은 이번 해 1학기 기준 총 97개의 강의를 열렸지만 1전공자 전용·우선수강 강의는 43개, 이중 전공생 전용·우선수강 강의는 29개가 개설됐다. 이중 부전공생에게 해당되는 강의는 12개에 불과하다. 치열한 수강신청에 따라 지난해 동계 계절학기에는 경영학부 6과목, 경영학전공 15과목이 개설됐다. 경영학부에 개설된 6과목 모두 전공필수 과목이었으며 경영학전공 강의는 15과목 중 11과목이 전공필수 과목이었다. 이번 하계계절학기의 경우 수요조사 결과 경영학부 6과목, 경영학전공 14과목이 개설될 예정이다. 이는 우리학교 내 평균 계절학기 강의 개수가 전공당 3과목인 것과 비교하면 경영대학생들의 계절학기 수요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계절학기, 선택권이 없는 학과의 학생들

계절학기가 개설 되지 않는 학과도 많다. 서울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에 따르면 계절학기의 목적은 정규학기 이외에 강의 수강이 필요한 학생의 요구 반영이다. 그러나 이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뤄지는 보조학기이기 때문에 수요인원 30명 이상을 충족시켜야만 개설이 가능하다. 이인재(아시아·태국어 13)씨는 “대부분 어문학과는 전공강의가 1·2학기 이어지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군 휴학 후 어쩔 수 없이 2학기에 복학하게 돼 1학기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채 2학기 강의를 수강할 수밖에 없어 부담이 매우 컸다”며 “학생입장에서는 계절학기를 수강하고 싶지만 우리 과에 계절학기가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적다는 이유에서 계절학기가 개설되지 않음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지만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계절학기 강좌의 개설은 직전학기의 모든 강의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실시한 수요조사와 학과 요청을 취합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다. 그러나 한 학년 정원이 30명 내외인 학과 학생들로 계절학기 개설 조건인 최소인원 30명을 채우기는 쉽지 않다. 높은 수요로 인해 계절하기로 몰리는 대형학과 학생들에 비해 소형학과 학생들은 수요 미달로 수강기회를 얻기조차 힘들다. 실제로 이번 하계 계절학기의 경우 소형학과들 중 터키어과 1과목, 한국어교육과 2과목이 개설예정에 있다.

◆계절학기, 가격 책정과 진행사항

계절학기의 가격책정 기준 또한 많은 학생들이 의문을 가지는 사안 중 하나다. 우리학교의 계절학기 수강료는 학점 당 7만 9천원이다. 우리학교 계절학기 가격 책정 기준에 대해 학종지 측은 “계절학기 가격책정기준 규정에 따라 학점 당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원칙에 따를 시 계절학기 등록금은 현재에 비해 최대 2.5배 까지 책정될 수 있지만, 학교 측에선 논의를 통해 수강료를 주로 강사료로 배정했기 때문에 수강료가 학점 당 7만 9천원으로 책정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학교는 타 대학들에 비해 적은 수요의 강의도 개설하려 노력 중이며 가격 또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고 학교 측의 입장을 전했다. 수강료 환불에 관해서는 “계절학기는 정규학기가 아닌 보조학기의 개념이기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학기가 시작되면 전액환불이 이뤄질 수 없다”고 답변했다.

타 학교의 계절학기 수강료는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학점 당 △서울시립대 3만 5천원△부산대 2만 5천원△충남대 2만 3천원이며 사립학교의 경우 학점 당 △연세대 11만 1천원△서강대 9만 6천원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 내 주요 사립대 8곳(△연세대△고려대△서강대△이화여대△성균관대△중앙대△경희대△한양대)의 학점 당 계절학기 등록금 평균은 대략 8만 3천원으로 이중 6개 대학의 학점 당 등록금이 9만 원 이상이다. 계절학기는 정규학과 달리 교육법 상한제한에서 벗어나있기 때문에 계절학기 등록금 책정은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현재 고등교육법 제11조 1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에 따라 계절학기 수강료는 법적 제제가 어렵다. 한편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계절학기 수업료가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대상이 되면 정규학기 등록금과 같은 등록금 인상폭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대학들의 합리적인 계절학기 등록금 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국회에 제기된 바 있으나 현재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하계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이번 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수강신청 변경은 다음 달 6일을 제외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계절학기는 다음 달 22일을 시작으로 총 16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방학기간 중 △계절학기△국내·외 타 대학 수학△기타 인정학점제도 등을 포함한 수학제도도 총 6학점을 초과해 인정받을 수 없다. 수강료 전액 환불은 수업개시전인 다음 달 21일까지 가능하고 수업 3/4선 후인 7월 9일 이후 환불은 불가하다.

홍주연 기자 95m52535@hufs.ac.kr

미래의 언론인, 97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나는 백만장의 중첩보다, 성장의 실문지를 더 두려워한다”
-나폴레옹-

·모집대상

양 캠퍼스 3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학생 누구나

·지원마감

1차 마감 6월 5일 자정

·필기시험/면접일

서류 심사 후 개별 연락

·합격자 공지

필기시험/면접 후 개별 연락

·활동 혜택

언론 장학금 혜택
취재 활동비 및 취재 수당 지급
사회 각계의 선배들과의 만남

▶지원서 수령 및 문의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박주원 편집장 010-4549-3209

대학가 주점 전면금지, 축제의 변화

시험기간이 끝나고 청춘의 상징, 축제가 다가오면서 대학생들은 들뜬 마음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새내기에게 축제는 색다른 경험으로 가장 기대되는 대학생활 중 하나다. 특히 각 과에서 운영하는 주점은 축제하면 빠질 수 없는 재미요소였다. 하지만 지난 1일 교육부가 전국 대학

에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라는 공문을 내리며 대학 노상주점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대학가에 내려진 주세법령 공문과 갑작스런 제재강화에 대한 이유를 알아 보자

◆ 갑작스런 제재강화의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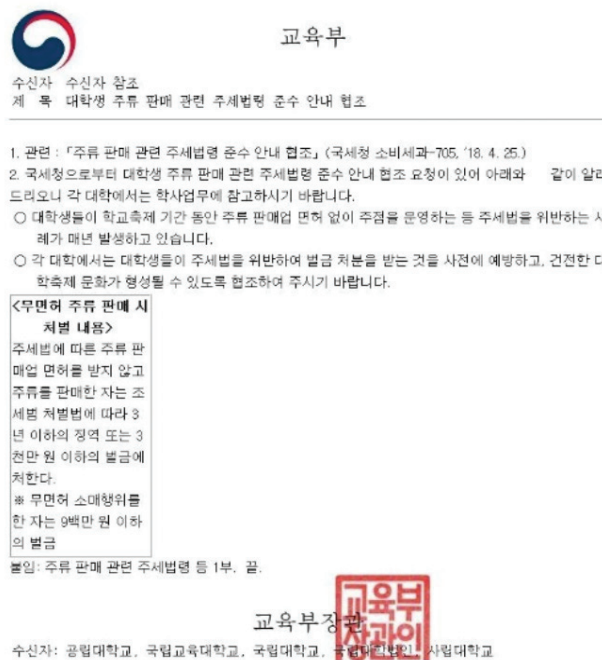
교육부는 “대학생들이 학교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해 발생하고 있다”며 “각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 받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는 공문을 전국 대학에 발송했다. 갑작스런 공지의 배경은 지난해 인하대 축제에서 주류를 판매해 국세청의 조사대상이 된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국세청은 형평성을 지키고자 교육부를 통해 전국대학에 주세법령에 관한 공문을 전달하게 됐으며 주점 운영을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면허 주류 판매 시 처벌 내용’엔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칙적으로 무면허 주류 판매가 엄격히 제한된 상황에서 교육부가 보낸 협조문은 주점운영 금지를 다시 강조했다.

2007년에서 2015년 사이 대한보건협회의 대학생 음주 사망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80%가 학교 행사에서 발생했다. 2015년 KBS 9시뉴스 또한 축제 기간 중 교수·학생들의 무더기 음주 운전이 적발됐고 대학생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숨지는 등 이 기간 내 음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의 인터뷰에 따르면 국세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공문 발송은 불법으로 운영했던 대학 축제 주점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곳의 영업신고서를 내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주세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받지 못한 곳에 사업자 등록을 해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며 교육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대학 축제 주점을 전면 금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관과 같은 건물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등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주점을 진행하라는 취지에서 협조문을 발송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 대학축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교육부 요청에 따라 많은 대학이 주점 운영 방식에 변화를 꾀했다. 타 대학들은 ‘주류 구매대행’, ‘주류 무상 제공’ 등 새로운 방식으로 주점을 진행했다. 홍익대의 경우 총학생회가 특정 가게를 섭외해 ‘주류 매



▲교육부가 전국대학에 보낸 주세법령 관련 협조문

점’을 유지했다. 또한 ‘소주 무한 제공’이라고 붙여진 한 학과 주점에선 교수와 졸업생들의 후원금으로 산 술을 무료로 나눠주며 안주 판매만을 진행했다. 세종대도 마찬가지로 안주만 판매하며 외부에서 주류를 반입하는 방식으로 주점을 운영했다.

반면 광운대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열린 무알콜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에듀동아에 따르면 광운대는 학생자치기구와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주점이 운영될 소지가 있는 전막 및 학내공간을 제공하지 않기로 사전 협의했다. 아울러 수익성 사업 및 조리, 주류 배분 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주점이 열릴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또한 축제의 새로운 모델로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커리어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헤어·메이크업△취업사진 촬영△의상대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도왔다. 1:1 취업상담 ‘일

자리 부르릉 상담버스’와 동시에 MBTI 성격유형 검사도 진행됐다. 이에 더해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을 초청하고 취업 준비중인 학생들과의 진로상담 및 직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박지현(아시아·아랍어 17) 씨는 “축제에 술이 없는 것은 아쉽지만 점차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 같다”며 “입학했을 때부터 우리학교는 주점이 없어 이에 대한 재미는 모르겠지만 우리학교의 특색을 살린 체험이 많아서 재밌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축제 때 음주로 생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선정적인 문구로 주점 포스터를 만드는 것도 문제였던 것 같다”면서 “광운대와 같이 술 없이 성공적으로 축제를 진행한 학교를 보며 대학가 축제가 술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즐길 수 있는 요소를 찾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우리학교는 어떤가요?

우리학교는 2013년부터 교내 일일주점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에빈(사회·미디어 12) 씨는 “신입생 때 주점을 운영하며 선배, 동기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었는데, 갑작스레 금지돼 혼란을 겪었다”며 “주점을 운영할 수 없게 돼서 일반 술집과 상의해 일일호프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에서 학생들과의 협의를 거친 뒤 차근차근 진행했다면 학생들이 덜 혼란스러워 했을 것 같다”고 갑작스런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2015년, 우리학교 축제는 주점을 진행한 바 있으나 허가 없는 운영으로 당시 학생회장단과 주점에 참여한 과 단위 회장들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

안중현(서양어·독일어 16) 총학생회장은 “저번학기에 독일어과나 중국어대가 축제 당시 현지 맥주체험형식으로 간단한 행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갑작스러운 교육부의 통보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친 결과, 축제 때 주류 판매에 대해선 과 단위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갑작스러운 공문 하달보다 학생들과 이야기하며 속도를 조절했어야 했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정동민 기자 won01000@hufs.ac.kr

패션을
포착하다

흡선피플

뜨거운 햇빛으로 여름이 다가왔음을 느끼는 요즘, 기자는 지난 호 날려먹은 흡선피플 촬영을 위해 교내를 돌아다녔다. 그 때 차분한 흰색 셔츠와 베이지 와이드팬츠를 입은 학생이 지나간다. 갈대 같은 차림에 흠칫 놀란 기자는 머리에 반다나, 발에 빨간 구두라는 화룡점정을 찍은 패션센스를 보자마자 “저 사람이다”하고 인터뷰를 요청했다. 예사롭지 않은 패션만큼 개성 있는 성격까지 갖춘 아하정(사회·정의 16)씨가 1020호 흡선피플로 선정됐다.

기자(이하 기) : 오버사이즈인 셔츠와 바지는 자칫 하면 어병해보일 수 있는데, 원래 큰 사이즈의 옷을 즐겨 입으시나요?

하정(이하 하) : 저는 큰 사이즈의 셔츠와 바지가 자유로워 보이고 편해서 좋아해요. 굳이 “치마입고 자세가 그게 뭐냐”라는 소리 듣기도 싫고, 뭘 입든 상관할 바 아닌데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마음이 옷에 반영됐나 봐요. 내 몸에 딱 맞는 옷은 교복으로 충분했어요. 하하. 옷장을 열어보면 거의 모든 옷이 원래 제 사이즈보다 두 사이즈씩 커요. 그리고 오버사이즈는 귀엽잖아요. 귀여운 게 짱이죠. 아, 가끔씩 핫하고 심을 때 짧고 달라붙는 옷을 입기도해요. 이것도 다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기 : (심상치 않은 고집쟁이임을 직감하며) 지난해



윤식당에서 정유미가 자주 썼던 반다나도 착용하셨네요! 러블리함을 위해 헤어아이템에도 신경을 쓰시나요?

하 : 여기서 정유미에 비유를,,,? 예전에는 러블리함을 위해서 하고 다녔는데 오늘은 머리감을 시간이 없었어요. 대충 머리를 묶고 나오는데 지저분한 잔머리를 감춰야 해서 반다나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를걸요.



기 :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지만 애써 웃으며) 차분한 베이지색에 빨간 구두가 눈에 띄네요. 평소에는 신기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이 구두는 주로 언제 신으시나요?

하 : 사실 이 신발은 불편한 구두보다는 단화에 가까워요. 불편한 굽 있는 구두와는 달리 단화는 굽이 없어 편하고 심지어 귀엽기까지 해서 자주 신어요. 의외로 빨간색은 어디에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청바지, 검정 슬랙스 모두 상관없이 다 어울려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보면 죄다 이 신발을 신고 있어요. 약간 민망해서 빨간 신발 없이 못사는 사람이라고 괜히 덧붙였던 적도 있어요.



저녁촬영으로 사진이 찍혔한 분위기를 뭘까 기자는 걱정했지만, 하정 씨의 밝은 미소와 자신 있는 포즈 덕에 역대급 흡선피플이 탄생할 수 있었다.

조유진 기자 96yujin@hufs.ac.kr

한번의 조화가 한평생의 상처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움직임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참여인원 : [209,494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시작
 2018-03-23

청원마감
 2018-04-22

청원인
 naver-***

이번 달 23일, 청와대가 △몰래카메라△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사건△피팅모델 성추행사건 등 최근 논란이 된 몰래카메라 및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건의 국민청원은 빠르게 국민들의 동의를 얻으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보여줬다. 몰래카메라 범죄로 우리 사회는 ‘몰래카메라 예방법’, ‘몰래카메라 찾는 법’ 등을 공유하고 실리곤 건이나 매니큐어를 들고 다니며 몰래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 전전긍

금하고 있다. ‘혹시 나도 찍히지 않았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은 일상을 옥죄는 몰래카메라 및 디지털성범죄에 관해 뜨거운 달론을 이어가는 중이다. 현재 몰래카메라 처벌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학교 이창주 미네르바교양대학 교수에게 물었다.

이창주 교수 미네르바교양대학

Q1. 현재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성폭력범죄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범죄는 바로 몰래카메라 범죄로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디지털성범죄 양태별 적용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성범죄 처벌 관련 법률>

1. 촬영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공공장소에서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을 촬영)

2. 유포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촬영에 동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했을 시)

3. 재유포행위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항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을 재유포, 이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재유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

4. 유포협박행위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행위)

5. 유통행위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항,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3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음란물 유포를 방조, 유통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처벌)

6.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제13조, 「정보통신망법」제70조, 「형법」제310조 명예훼손죄,「형법」제311조 모욕죄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 희롱△음담패설 및 이미지 전송△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한 성적 모욕△게임 내 성희롱△단톡방 내 성희롱)

디지털성범죄 증가 시기인 2011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서울지역 법원의 1심 판결 분석 결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은 징역형 5.3%, 벌금형 71.9%를 기록했다. ‘음란물 유포죄’ 처벌은 징역형 5.8%, 벌금형 64.4%로 나타났다. 개인적·사회적으로 범죄가 미치는 영향에 비해 처벌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디지털성범죄는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지만 벌금형과 같은 미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디지털성범죄는 촬영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유포·유통 등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Q2. 불법촬영 및 디지털성범죄의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디지털성범죄가 디지털수단을 통해 저질러지고 유포되는 기법으로 이

뤄지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법적처벌규정이 디지털성범죄 기법의 발전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더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 최근엔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범죄가 이뤄진다. 범죄 수법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디지털성범죄는 날로 기승한다. 반면 범죄를 △탐지△색출△차단하는 전문탐지장비나 수사기법은 미흡하다. 개인범죄자에 대한 추적도 어려운데다가 △사이트운영자△광고업자△웹하드△해비업로더△음란인터넷방송업자 등 대규모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운영서버가 해외에 있는 사이트의 경우는 통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해외서버에 게시된 불법촬영물은 증거확보가 어려워 수사를 중도에 종결하기도 한다. 이렇듯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는 영상물이 순식간에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디지털 테러의 속성을 지녔지만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한다. 그 결과 디지털성범죄의 사각지대가 양산됐다. 디지털성범죄 사례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폭증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해비업로더: 인터넷 사이트에 콘텐츠를 대량으로 올리는 사람, 최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하드와 같은 사이트에 업로드 후 수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대상이 됨.

Q3. 과거 디지털성범죄 처벌법에 대해 최근 개정된 사안이 있는가?

그동안 디지털성범죄 처벌은 느슨한 수사관행 및 약한 처벌 강도로 비판받았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과 같은 사건을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자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급증한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법안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의 개정사안은 아래와 같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개정사안>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개정: 2004년부터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에 촬영 음이 들어가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촬영 무음 앱에 대해 규정이 별도로 없다가 지난해 12월부터 무음 앱을 다운로드 할 때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조치했다.

2.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미 이행 시에는 시정명령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공중위생법」개정: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하다 발각돼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을 적용해 처벌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이 조처된다.

4. 이번 해 6월부터는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폰 촬영을 할 때 불빛과 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을 의무화한다.

Q4. 불법촬영물을 유포 및 소비하는 2차 가해도 논란의 대상이다. 2차 가해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디지털 테러의 속성을 지녔지만 미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급증한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법안 개정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2차 가해 처벌 및 변형카메라 판매규제와 피해자를 위한 법률적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고 있는가?

불법촬영물은 빠른 속도로 유포되며 소비 또한 짧은 시간에 이뤄진다.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한 음란물이 퍼지는 것조차 인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불법촬영물의 유포 및 확산을 촉진하는 해비업로더와 웹하드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앞으로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촬영물을 재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강력해졌다. 「정보통신망법」제44조 7조항은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을 재유포하는 행위부터 성적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재유포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까지 규제 범위의 확대를 보여준다. 이렇듯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단순 다운로드 및 열람 행위에 대한 처벌은 규제가 어려워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시정명령: 발견된 부적합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잠재적 상황의 원인을 제거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다.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 시정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Q5. 초소형, 위장카메라 판매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가?

불법 촬영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의류△넥타이△펜△안경 등에 부착할 수 있는 변형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관련 규제가 없어 누구나 인터넷, 전자상가 등에서 손쉽게 변형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응해 이번 해 6월부터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 등록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카메라 구매 시 개인정보 제공이 요구되며, 카메라를 양수·양도할 때도 신고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카메라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될 것이다. 최근엔 드론을 이용한 촬영도 종종 이뤄지는데, 드론 촬영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비행허가와 연계해 규제할 예정이다.

지난해 노트북카메라 및 가정용 IP(Internet Protocol) 카메라와 같은 네트워크카메라의 촬영 및 녹화 영상이 무단 접속·해킹 돼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된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제조사는 단말기 별로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구매 후 초기 비밀번호 변경을 촉구하는 등 해킹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해 나감 방침을 세웠다. 이번 해 한국조폐공사에서는 IP카메라 해킹 방지 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술적 측면에서 해킹·유통 방지에 힘쓰고 있다.

Q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적 지원이 있는가?

이번 해 4월부터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도입해 피해신고 접수에서 법률지원까지 종합서비스 지원을 시작했다. 그리고 기존 운영 중이었던 ‘여성긴급전화 1366’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창구를 겸한 시스템 또한 운영되고 있다. 신고 즉시 경찰 신고에 필요한 △증거 수집△긴급 삭제 지원△방송통신위원회 연계△사후 모니터링△전문상담△의료비 및 보호시설 입소 지원△무료 법률서비스 등의 피해자 종합서비스가 제공된다.

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 전담 창구를 운영 중이다. 대화형 메신저,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된 불법 촬영물에 긴급 신고 버튼을 설치해 재유포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신설했다. 또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해 참여·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중이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심의와 삭제절차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다. 피해자는 그 기간 동안 촬영물 유포 피해에 노출돼 있었다. 이번 해부터는 먼저 차단 조치를 내린 후 심의를 진행해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속하게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시행함으로써 불법촬영물 게시 및 유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보내며

기사를 한 번 더 쓰면 차장 임기가 끝난다. 정기자와 차장으로 보낸 1년을 되돌아보며 내가 거쳐 온 11번의 마감일을 떠올려봤다.

저녁 7시. 학보사실에 기자들이 모여며 마감이 시작된다. 저녁을 거른 기자들이 많아 분위기가 힘이 없다. 근데 편집장이 메뉴를 정하라고 해도 아무도 말을 안 한다. 저녁 11시. 기사의 1차 수정본이 안 나오면 초조해지는 시점이다. 이러다가 또 막차를 놓치겠다 싶다. 옆 기자에게 언제쯤 끝날 것 같냐 물어보니 자기는 어제 기사를 써와서 국부장에게 원고를 전달한 상태라고 한다. 나만 초조한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새벽 1시. 그렇게 또 막차를 놓쳤다. 뒤늦게 야간버스 시간표를 찾아봐도 운행이 종료됐다고 한다. 콜택시를 타려고 보니 밤길이 무섭다. 기숙사생과 자취생이 부러워진다. 아직 아무도 퇴근하지 못했다. 새벽 3시. 마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도 첫차까지는 3시간이 남았다. 화장실에서 이를 닦고 돌아와 보니 옆 기자가 책상에 엎드린 채 자고 있다. 아까 기사 다 써왔던 그 기자다. 앞에 앉은 기자는 동공이 풀려있다. 커피도 동이 나는 시점이다. 새벽 5시. 날이 밝아온다. 편집장이 나에게 2차 수정본을 고쳐 카톡으로 보내라고 한다. 내 기사는 끝났다. 첫차까지는 40분이 남았다. 학보사실에는 아직 기자들과 편집장이 남아 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다. 몇 시간 뒤에 조판소에서 다시 볼 사람들이다.

이렇게 마감이 끝난다. 그러니 학보 마감일마다 밤을 새는 국부장에게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같이 고생한 동기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한다. 취재에 협조해준 학교 기관·처의 교직원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독자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며 97기 수습기자 모집과 6월 14일 발행될 종강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한다.



고유진 기자 95howcuty@hufs.ac.kr

세상을 향한 통쾌한 일침

지난 21일 첫 방영된 JTBC 월화드라마 ‘미스 함무라비’가 방송 2회 만에 시청률 5.2%(닐슨코리아, 수도권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드라마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을 주인공이 유쾌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큰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극 중 신임 판사인 박차오름(고아라 분)은 출근 첫날, 지하철에서 흔히 진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마주한다. 한 여성은 큰소리로 통화하며 소음을 내고, 어떤 남성은 ‘쩍벌 자세’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 이에 주인공 박차오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법을 통해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끼친 민폐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 박차오름의 사이다*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 앞에 있는 여성을 성추행하고 있는 한 남성을 발견하곤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긴 후 “여학생이 엉덩이로 손을 자꾸 비비는 데 안 불편하냐”며 “연약한 남자라고 당하고 살면 안된다”고 성추행범을 비곤 후 경찰에 신고했다.

박차오름은 직장상사로부터 “성 관련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 때문이다”, “여자라면 조신하게 입고 다녀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분노해 다음 날 민반의 준비를 하고 출근한다. 그녀는 상사의 논리에 정면으로 부딪치기 위해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등장하는데, 상사가 이에 꾸중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의복과 관련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 조신한 옷으로 같이 입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제

외하고 모든 신체 부위를 덮는 의상인 ‘니갑’을 입고 등장한다. 그녀는 상사에게 “어디 여성이 조금이라도 신체를 노출해서 되겠어요?”라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 가장 조신한 옷인데, 마음에 드시나요?”라고 상사에게 질문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웃음과 쾌감을 자아냈다.

박차오름의 선임 판사인 입바른(김명수 분) 또한 이러한 사이다 돌직구를 선사한다. 회식 자리에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는 전형적인 꼰대 선임판사에게 “아니 처음부터 찰떡같이 말하면 될 것을 굳이 개떡같이 말해 놓고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니 이 무슨 개떡같은 소리냐”라고 하며 사회생활을 하는 많은 청년층의 마음의 소리를 대변했다.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는 대중교통의 진상 승객부터 꼰대 상사까지 일상 속 우리들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풀어내고 비꼬며 인기를 얻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자들이 대리만족과 카타르시스를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이다 같은 전개를 기대해본다.

***사이다 :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속이 돌리는 명쾌한 말이나 행동을 일컫는 신조어.**

김초영 기자 96_ivana@hufs.ac.kr

각자의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과연 세계의 진짜 모습일까? 의문이 든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다들 각기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칸트는 이를 인식능력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생명체는 각자의 인식능력을 통해 세상을 받아들이는데, 이 능력에 따라 보이는 세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카메라를 예로 설명하면, 카메라는 대상으로부터 반사된 빛을 렌즈로 모아 상이 맺히도록 한다. 이때 카메라 안에 맺혀진 상은 렌즈마다 차이가 있다. 오목렌즈는 빛을 퍼뜨리고 볼록렌즈가 빛을 모으듯 렌즈에 따라 맺혀진 상은 다르다. 확대·축소되기도 하며, 상이 흔들려 불분명하게 보이기도 한다. 우리도 감각이라는 렌즈를 통해 외부 세상의 빛을 모아 내면에 재구성한다. 렌즈에 따라 맺히는 상이 다르듯 개인도 저마다 다른 세상을 구성한다. 다시 말해 주체의 인식능력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다. 예컨대 인간은 시각을 중심으로 △청각△후각△지각 등을 통해 세상을 받아들인다. 산과 들은 푸르고 하늘은 파랗다. 털은 부드럽고 들은 딱딱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식능력을 기반으로 구성된 세계다. 그러나 박쥐나 돌고래의 세계는 우리와 다르다. 그들은 청각을 중심으로 초음파를 사용해 물체의 색보다는 형태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이런 세상은 우리가 보기엔 조금 더 딱딱하고 무거운 세상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상이 아닌 4차원에 사는 생명체

일 경우 또 다르다. 이들은 자기장이나 전자파 파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우리 같은 3차원의 생명체가 보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의 세상을 볼 것이다. 이처럼 △사람은 환경△선천적인 능력△취향 등의 차이로 인식능력이 각자 달라 구성하는 세계도 제각각이다. 인식하는 주체는 선천적인 인식능력의 한계 이상으로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객관적인 모습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확히 본다고 할 수는 없다. 단지 각자 주어진 인식능력을 통해 내면에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 어쩌면 우리는 각자만의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참모습을 본 적이 없기에 진리를 갈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산 기자 96mountain@hufs.ac.kr

다양함을 넘어서

박세원(서양어·이탈리아어 17)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19호 역사일차고유익한소식들로채워져있는내내자루할틈이없었다.특히이번호에는IO국제학회로나주한쿠웨이트대사특강등분교에서진행된다양한국제행사들이잘정리돼보기편했다.우선1면에제시된서울캠퍼스총학생회의판문점선언번역기사는지난4월남북정상회담개최와맞물려매우시의적절했다.또우리학교학생들의자부심을드러내기에도충분했다는점에서높게평가한다.다만좋은취지로진행됐던행사인만큼특집기사로신문의한면을할애해사진및부가적인설명을덧붙였다면더욱의미있었을것같다.

4면에제시된국제교류프로그램기사가매우흥미로웠다.우리학교는세계여러국가의언어를배울수있는특색있는학교로,그만큼해외교류프로그램에학생들의관심과수요가대단하다.이번기사에는특히△교환학생과7+1파견학생제도의차이점△선발기준제시△해외연수및해외계절학기제도설명도함께언급해학생들에게유익한정보를제공했다.그러나기사에서짧은국제교류프로그램의주요문제점은출처를정확히알수없어의의했다.많은학생들이겪었던문제임은분명하나,이문제들이모든학생들의의견

은아닐뿐더러언제어떻게조사됐는지알수없다는점이아쉬웠다.직접해외로파견됐던학생들에게서면혹은온라인으로설문조사를진행해학생들이느끼는가장큰문제점과이들해결할수있는방안을제시했다면보다신빙성있고포괄적인내용이됐을것같다.마지막으로5면에제시된교육부대학재정지원사업기사는매우참신했다.이기사는학생들에게생소할수있는정부의여러대학재정지원사업을소개하고지난3월개편전후의현황을잘비교하고있다.특히중앙및조선일보등신문기사를인용해구체적수치자료및상황을제시해자료의신빙성과구체성을충분히확보하고있다.하지만우리학교가추진하고있는CORE사업을비롯해기사에삽입된표에있는CK와PRIME과같은사업에관한간단한설명이덧붙여졌다면학생들의빠른이해도에움이되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든다.

따뜻한봄바람도잠시,갑작스러운소나기와함께더위가찾아왔다.정신없는학기초가 지나고기말고사를한달앞둔지금,잠시나마학업스트레스에서벗어나삶의여유를가져보는것은어떨까.또한다양한콘텐츠들을담아낼외대학보의1020호역시기대해본다.

기본의 중요성

조강휘(통번역·아랍어 15)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이번1019호에서다른주된내용은학우들이알면좋은'정보'다.특히4면은많은학우들이관심갖는국제교류프로그램에대해자세하고,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정리가잘돼있어정보를편하게얻을수있었다.프로그램지원시주의해야할점과여러가지고려사항에대해서도알려졌다.자칫하면쉽게넘어갈수있는부분까지짚어주고그에맞는정보까지제공해주면족스러웠다.

5면은교육부대학재정지원사업개편안발표에관한기획기사로,개편대상사업은무엇이며해당사업들의재구조화△개편원인△전망등에대해상세히다뤘다.특히,우리학교가참여하는재정지원사업인△BK21+사업△CK사업△CORE사업등에대해알려주며각사업의주요활동과목표에대해다뤄학우들에게어려울수있는대학참여사업에대해보기쉽게알려졌다.

7면은시험기간이되면학우들이항상고민하는강의평가제도에대해다루고있다.구체적으로는△강의평가가갖는의미△다른대학들의평가제도△제도의한계에대해알려준다.특히,강의평가가어떤역할을하는지,교수에게어떤영향을줄수있는지알려주고다른학교의강의평가방식과우리

학교의방식을비교해더쉽게이해할수있었다.또한이제도의한계인△평가의진정성△해△실효도저해까지제시해대학생활을하며무심코넘어갈수있는강의평가제도에대해다시생각할수있게해준좋은기획이었다.

8면에서는지난해8월19일,문(文)정부가도입한청와대국민청원제도에대해다룬다.상세하게는△제도에대한설명△설립취지△순기능△역기능에대해다뤘다.특히여러사례를제시해제도의파급력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했다.또한제도의양면성을알수있도록설명하고이재목정치외교학과교수의역기능해결책제시를통해학우들이입체적으로살펴볼수있게했다.

어느덧5월이절반이상지났다.학교에여러사건사고가있었지만봄비로인해미세먼지가없어지듯시간이흘러종강이약한달정도남았다.이번호는학우들이평소쉽게지나칠수있지만유용한정보들을많이다뤘다.대학신문의기본은정보전달이고,그기본은상당히중요하다.이번호는그기본의중요성을다시금알게해준좋은기사들이많았다.계속되는날씨의변화속에서도외대학보는학우들의중심에굳건히자리잡아많은기사들을남겨줬으면하는바람이다.



국 · 부장 고정칼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필자의 아빠는 매우 가정적이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다. 아빠는 필자를 깨울 때, 침대에 같이 누워 간지럽히면서 깨우곤 한다. 지금도 아빠가 보고 싶어서 카톡 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답장해준다. 부모의 사랑은 맹목적이고 헌신적이다. 아빠의 사랑에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고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매우 낙관적인 필자는 모든 사람이 우리 부모님과 같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모두가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 당연했다. 나는 타인이 주는 사랑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다. 호의를 베풀지 않는 상대방에게 화가 났다. 이런 관계가 계속 반복됐음에도 나는 깨닫지 못했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과 인연을 끊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타인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고마워야 하는 일이라고 깨달았다.

이렇게 배우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재고하게 됐다.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할 수 있는 기간, 안정성, 월급 등 고려하는 것이 있다. 공무원이 좋은 직업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평생 직장이라 안정적이고 월급이 계속 오르기 때문이다. 한때 기자가

내 직업인가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다. 기자가 되기 위해선 언론고시를 봐야 하고 등등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기자가 되면 나중엔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겠지. 직업을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고 꿈을 한정시킨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다. 필자의 친구 중에 승무원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꿈은 승무원이 아니다. 친구가 생각하기론 승무원은 젊을 때만 할 수 있고, 해외에서 일하면서 공부하기도 좋은 직업이다. 내가 생각했던 직업은 당연히 평생 직업인데 친구는 직업 하나하나를 자기의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듣고 나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됐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게 됐다. 생각하고 가치를 평가할 때 '당연(마땅히 그러함)'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모든 것에 당연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박지민 부장 94pjimin0303@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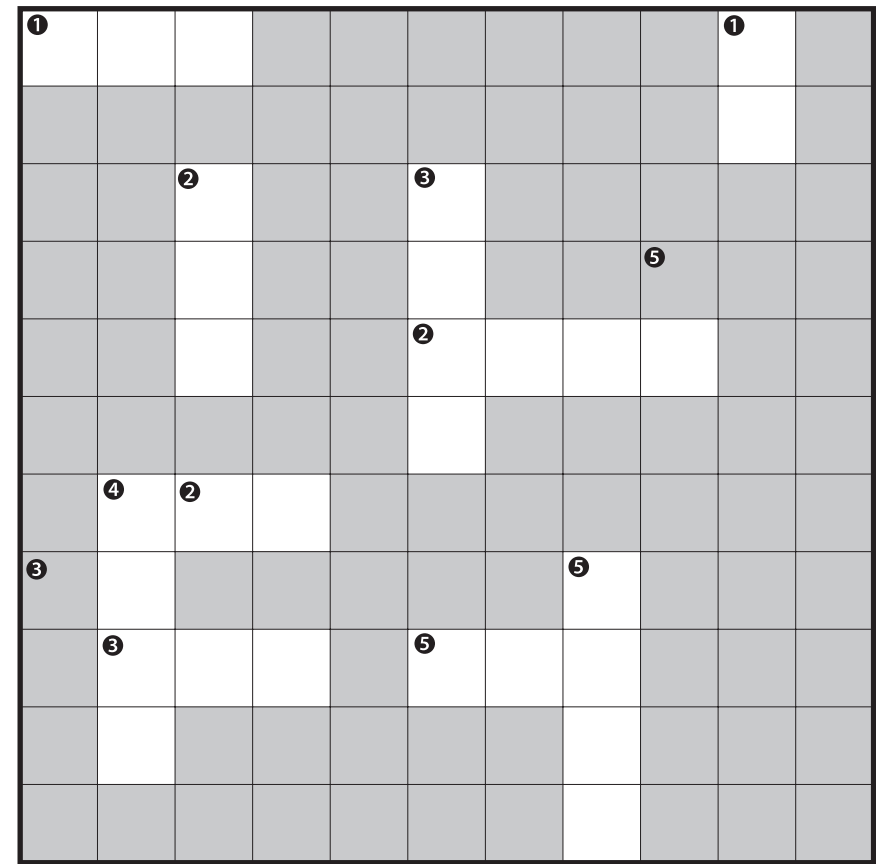
만평

청와대 국민청원...



기사제보 편집장 박주원 010-4549-3209 94swj04142@hufs.ac.kr

십자말풀이



- 가로**
1. 글로벌 캠퍼스 기숙사 ○○○, 그것이 알고 싶다(5면 참조)
 2. 갑질, 성희롱, 폭언 등으로 ○○○○침해 문제(4면 참조)
 3. Hufs 출판문화상 ○○○ 개최(1면 참조)
 4. ○○○에서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4면 참조)
 5.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관련 지침(8면 참조)

- 세로**
1. 우리학교는 5월 30일에 ○○가 시작된다 (8면 참조)
 2. ○○○는 전국대학에 지난 1월에 공문을 보냈다(8면 참조)
 3. ○○○○를 듣기 위해 학점당 79000원의 수강료를 내야한다(5면 참조)
 4. 김문수 ○○○○ 후보 간담회 진행(12면 참조)
 5. 몰래카메라를 사용하는 ○○○문제가 심각하다(8면 참조)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1명에게 영화예매권 2장, 또 다른 1명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사설

우리나라 문화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

지난 27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규 3집 'Love Yourself 轉 Tear'가 우리나라 최초로 빌보드 200차트 1위를 기록했다. 빌보드 200은 앨범 판매량과 스트리밍 실적 등을 종합해 매주 미국 내 인기 있는 앨범의 순위를 매기는 차트이다. 비영어권의 음반이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2006년 팝페라 그룹 일디보의 '앙코르' 이후 12년만의 일이다. 이에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은 28일, 방탄소년단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에 축하와 격려의 의미로 축전을 전달했다.

경제 성장에 따라 문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사람들은 문화를 통해 심미적·정신적 만족감에 대한 욕구를 느끼기 시작했다. 현대문화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는 생산·재생산·유통을 거치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문화산업은 더 이상 대량생산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이 뉴미디어를 통해 문화콘텐츠를 향유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되면서 문화산업에 있어 엔터테인먼트 요소, 즉 흥미 위주의 콘텐츠 유통이 각광받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음악 산업에 큰 반향을 낳고, 마블 유니버스의 '어벤저스:인피니티 워'가 우리나라 영화계를 휩쓸었다. 대중들은 이러한 문화콘텐츠에 열광하면서 단순한 원형콘텐츠 소비뿐만 아니라 2차 창작물을 재생산·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그 문화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마블 유니버스를 정리한 설명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고, SNS를 통해 다양한 팬덤이 소통하며 문화를 즐기는 사례는 현 대중문화의 세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현대 문화산업의 핵심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과 대형 팬덤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금,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소통은 문화산업의 성공을 돕는 지름길이다. 방탄소년단의 가장 큰 무기는 다양한 미디어로의 성공적인 접근과 활발한 소통으로 꼽힌다. 소통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피드백을 통해 고쳐나가며 흥미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공유하는 일.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형 팬덤을 구축하고 마르지 않는 샘물 을 형성하는 일. 방탄소년단이라는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다.

박주원 편집장 94swj04142@hufs.ac.kr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난 23일 법무부의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담은 변론요지서가 공개됐다. 법무부는 요지서에 '낙태죄 폐지는 성교는 하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며 낙태죄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았다. 성행위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게하고 낙태를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선택 구도로 보는 법무부의 입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장이다. 임신으로 인해 여성이 느끼는 신체적·정신적 변화, 여성이 짊어져야 하는 경력 단절, 원치 않은 출산으로 인한 고통 등은 뒤로 제쳐두고 오직 태아에 대한 여성의 책임만을 앞세운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에 여성들은 분노를 느끼고 거리로 나섰다. 여성들은 피임기구를 쓰고 피임약을 복용하더라도 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신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은 늘 여성들의 몫이다. 이런 근본적인 두려움에 책임감이 라는 무게를 더한 법무부는 분노의 대상이 되기 충분하다. 성행위에 따른 임신의 책임감을 언급하면서 남성의 책임감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낙태에 대한 비판 대상이 여성에게만 국한 된다는 것으로 받아드려지기 충분하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임신이 여성에게 사회적 고립과 중장기적인 불이익을 준다. 임신한 여성이 사회적 고립을 피해야 할 수 없다는 것은 임신이 여성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낙태가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선택이라는 판단은 임신이 여성 인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가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감내해야 할 조건이며 그 불이익은 여성이 알아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한국 여성 인권의 현 주소는 이런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 국가에서 낙태가 죄라면 그 범인은 바로 퇴보하고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하정 부장 94haj@hufs.ac.kr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편집장 박주원 010-4549-3209 94swj04142@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채영길
편집장 박주원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01
www.hufspress.net



대학생, 서울시장 후보에게 묻다

지난 16일 중앙대학교 중대신문의 주최 아래 연세대학교 교육과학관에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대학 학보사 간담회가 진행됐다. △출마 동기△서울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후보의 장·단점△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여성정책 분야△사드배치 등 다양한 질문과 그에 따른 김 후보의 답변이 이뤄졌다. 1시간 반 가량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김 후보의 생각과 입장 및 공약,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알아봤다.

Q1. 김문수가 밝히는 대학 관련 공약은?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대학이다. 서울의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밑천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이다.

서울 시장이 되면 대학 사업으로 '스마트 캠퍼스'를 추진할 것이다. 이는 대학가와 그 주변을 발전시키는 사업이다. 도시계획상 추가 혜택을 부여해 대학가 주변을 재개발하고 높은 빌딩이나 깔끔한 건물을 건축해 대학을 크고 멋지게 만들겠다. △대학△주민△구청△시청△학생과 5자 협력을 통해 좋은 대학촌을 개발할 계획이다. 새로운 건축 물엔 △도서관△공연장△창업교육센터△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대학 주변을 재개발해 새로운 이익을 얻는 대학촌을 만들 것이다.

Q2. 서울이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점은?

여론조사상 미세먼지가 가장 시급하다. 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선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 1976년 국가기술 자격에 환경관리기사가 생긴 이후 환경기사 자격증을 따서 2년간 공장에서 일했고, 국회에서 6년간 환경위원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 중 환경문제를 가장 많이 다뤘다.

우선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추가 설치해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측정을 할 것이다. 지하철이나 지하상가 같은 곳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제대로 된 측정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열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지점에 측정장치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취약층인 △임산부△아기△노인 등을 위해 △어린이집△산후조리원△요양시설△초·중·고 등에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미세먼지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서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서울시의 많은 건물을 녹지화 할 것이다. △그린 빌딩(Green building)△그린 월(green wall)△그린 공원(green park)와 같이 담벼락에다 담쟁이 넝쿨을 기르거나 무를 심을 것이다. 건물 옥상 녹화사업을 추진해서 주거지역 또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녹지화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개선에 앞장서려고 한다. 도시 곳곳엔 미세먼지를 가장 잘 정화할 수 있는 수종을 택해 숲을 조성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 2조 원 가량의 환경 예산이 4조 원 가량으로 늘어날 것이다.

Q3. 본인의 강점과 단점은?

우선 운동권 출신이라는 점이다. △학생운동△노동운동△시민운동 등 다양한 경험을 했다. 또한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지하고 있고 경기도지사 2번, 국회의원 3선 경력이 있다. 정치인 중 가장 약속을 잘 지키는 정치인이라 자부한다. 도지사 시절엔 공약 이행률 1위에 올랐다. 또한 경기도지사 8년 동안 전국 17개 중 16광역시·도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나는 깨끗하게 일하며 경험 역시 풍부하다.

단점이라고 하면 마르고 딱딱하게 생긴데다 한번 했다 하면 뿌리를 뽑는 성격이다. 이 때문에 여러 일화들이 생기기도 했다. 119 전화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제복 공무원은 모든 명찰과 계급을 제복에 붙인다. 상관이 요구할 시 자신의 계급과 성명을 부착해야 한다. 이것이 관등성명이다. 제복공무원은 반드시 관등성명을 대야 한다. 나는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 소방지휘관이다. 도지사인 내가 관등성명을 대면 반대쪽에서도 관등성명을 대야 한다. 당시 전화로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도 밝힐 줄 알았다. 하지만 해당 소방관은 이를 장난전화로 취급했던 것 같다. 어처구니없었지만 이것이 유명해졌다. 이처럼 나는 가끔 융통성이 없다.

Q5. 지난 2013년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 관련 공약을 가장 잘 지켰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서울시장이 된다면 여성정책 분야에선 어떤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겠나?

여성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성차별이다. △취업△경력 단절△복지과정 차별△진급문제△조기퇴직 분위기 등이 핵심문제이다. 지난 경기도지사시절에 출산 휴가로 휴직한 여성들을 원하는 요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유연근무시간제를 도입했다. 당연히 만족도가 높았다. 서울 시장이 된다면 출산 여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일자리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자녀 엄마들

은 주한 미군 사령관, 유엔사령관을 겸직하는데, 이들이 용산에 남는다면 서울 수도방위사령부 5개에 맞먹는 위력을 갖는다. 만일 이들이 북측의 공격으로 다치거나 죽는다면 미국은 보복을 강행할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의 공작으로 미얀마에서 정부 장관 7명이 사망했음에도 보복하지 못했다. 미국이라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걸 보수 진보를 떠나 국가의 안전에 관한 것이다.

Q7. 예산은 한정된 반면 지출은 늘어난다. 예산을 삭감할 부분이 있다면?

복지부문에서 민간과 협력해 예산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관공서를 중심으로 무상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민간부문과 협력해 수요자 맞춤형 무한 돌봄 복지로 바꿔야 할 것이다. 민간 복지센터나 종교단체 같이 기존 복지 활동 시설들을 보조·보완하되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가정을 집중 연구해 맞춤형 복지를 시행할 것이다. 공무원 중심의 복지활동은 민간부문 복지의 질을 낮게 만들 수 있다. 민간과 협력하면 질이 향상되면서도 적절한 예산으로 복지가 가능하다. 복지는 재정만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과 협력해 예산을 줄이면서도 더 좋은 복지를 실행할 것이다.

Q8.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여러분은 정말 사랑스러운 분들이고 훌륭한 분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기엔 어렵다. △북한△중국△만주△시베리아△아프리카 등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한다. 당신의 삶을 값지게 빛나게 만들 능력이 있으니 그런 삶을 살아가라. 젊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꿈을 가진 것이 젊음이다. 같이 한번 해보자.



Q4.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큰 틀은 우선 대학 주변에 지적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중국 칭화대나 북경대 근처엔 벤처나 창업교육을 위한 곳이 잘 조성돼 있다. 이처럼 대학 주변에 젊은이들을 위한 창업공간을 만들거나 외부 컨설턴트를 데려와 대학생을 돕도록 할 것이다. 외부 컨설턴트는 협력자로서 취업이나 기업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대학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 기업과 학교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창업을 시작할 때 기술적 지원과 함께 컨설팅도 제공하는 기업들을 대학 주변에 유치하겠다. 예를 들어 △이민동△수원동△인암동 같이 대학이 몰려 있는 곳엔 도시 계획상 추가 혜택을 부여하고 고층 건물을 건축한 뒤 세계적인 기업에 나눠줄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의 연구기관들은 대학에서 젊은 인재를 발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학 주변으로 오길 원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기업△학생△학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

에게 주택 우선보급과 교육비 지급도 고려할 것이다. 보육문제엔 밤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365일 운영되는 국공립 보육원을 설립할 것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도 시행할 예정이다. 사기업 같은 경우 직종에 따라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아직 존재한다. 인센티브를 지급해 개선할 생각이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

Q6. 서울시의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완화와 한미연합사령부 존치 공약을 발표했는데 지나치게 보수표 결집만 의도한 것이 아닌가?

서울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한강 주변의 건축물은 5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왜 35층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용산에선 50층 이상의 건물 건축이 가능하다. 건물이 꼭 높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건축기술이 발달되는 만큼 그에 맞게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했을 때보다 서울에 있을 때가 수도권 방어력이 훨씬 뛰어나다. 한미연합사령관